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오승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위원
ohsh@kiep.go.kr

백승관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sbaek@wow.hongik.ac.kr



1. 연구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변화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대안적 통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국제통화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체제 변화 필요성과 연계하여 제기된 바 있으나, 대체통화의 부재 문제로 실질적인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하였음.
- 지난 10여 년간 사용되어온 유로화는 국제금융시장 내 비중 확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위안화의 잠재적 대체 통화 가능성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이슈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금융환경하에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을 위해서도 국제통화체제의 중장기적 변화가능성과 그에 따른 국제 및 국내 금융분야에 대한 영향과 경제 전반에 야기될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달러화 중심의 기축통화체제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라도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복수의 국제통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무역결제 통화의 다변화, 외환보유고의 통화 다변화 등을 위한 개별국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실물부문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각국의 경제적 영향력 변화에 따라 통화 및 금융분야에 대한 영향력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통화체제의 변화방향과 가능성,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국제통화협력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사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결정은 향후 결제통화 및 가치저장통화로서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주요 결정사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가 필요함.
 -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와 결제통화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질 사안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될 것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정책대안 개발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주로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 점검, 유로화·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 분석,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 등을 다루고 있음.
- 첫째,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상황과 배경을 설명함.
 - 둘째, 국제통화체제의 대안분석 차원에서 각 통화별 신뢰성 및 활용범위 분석, 그리고 해당 통화 발행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대안 국제통화체제를 제시함.
 - 셋째, 기축통화의 안정성 분석으로 일극통화체제와 다극통화체제 간 비교분석을 시행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적절한 지역통화체제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함.
 - 마지막으로 앞의 연구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으로 찬성과 반대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찬성론자들(Bergsten 2007b, 2009; Kenen 2010a, b; Williamson 2009)은 SDR의 국제준비자산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미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으로, 당사국인 미국은 SDR 표시 자산의 달러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음.
- 이미 1970년대 말에 대체계정 이용을 제안한 Kenen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국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SDR이 국제준비자산의 기본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회의론자들(Cooper 2009; Eichengreen 2011)은 SDR이 국제준비자산으로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달러화를 대체하여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왜냐하면 대체계정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더 큰 문제로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고 있음.
- Stiglitz(2007)는 Keynes가 제안한 Bancor와 비슷한 세계화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세계금융당국이 필요한데 SD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계금융당국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 체제의 출현이 제시되었음.
 - 많은 학자들(Bergsten 2007a, 2011; Cooper 2009; Eichengreen 2009, 2011)은 장기적으로 국제통화체제는 미국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중심이 되는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다극체제의 가능성을 통화국제화의 결정요인들을 비교분석하여 판단하였으며, 여기에 적용된 요인들은 경제규모, 통화가치의 신뢰성, 금융 시장의 규모, 발전정도 및 국제화, 무역의 형태, 순해외자산, 그리고 국가의 힘과 권위이며, 분석대상 통화들에는 파운드화와 엔화도 포함되었음.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미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달러화는 1945년 이후 다른 통화들이 경쟁할 수 없었던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으로 미국은 여전히 GDP 규모가 가장 크고, 금융자산이 가장 많이 축적되었으며, 가장 크고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
 -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무역형태 면에서도 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비중이 높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미달러화와 달리 유로화의 가치는 상승 추세에 있고 유로화가 투자통화로서 사용되는 비중이 미달러화보다 높기 때문임.

- 미국 달러화가 여전히 압도하는 단극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유로화와 병립하는 양극체제로 전환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이 어느 정도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는가, 현 유로지역 재정위기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유로 지역의 재정통합이 될 것인가 등에 달려 있음.

-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미달러화 가치의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현 기축통화로서의 특권을 잃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며, Cooper(2009)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정책이 실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로화도 경쟁통화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극체제의 가능성도 열려두어야 할 것이나, 현재 지적되고 있는 유로화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귀추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유로화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유로 회원국 간 경제여건의 편차가 커서 단일 통화정책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앞으로 유로 회원국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둘째, 유로 회원국들의 물가상승률 수렴조건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지만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부채의 경우 수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회원국들 사이에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차가 더 커지고 있어서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지적됨.
- 경제여건들이 다른 회원국들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수지 적자의 수렴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결국 이 문제는 재정통합 또는 그에 부응하는 유로존 통합재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만약 현재 진행 중인 유로 재정위기가 진화되고 재정통합과 관련된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회원국 간 경제여건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미달러화의 경쟁통화가 되어 양극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통화체제는 미달러화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삼극체제가 머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Bergsten 2009, 2011; Eichengreen 2007, 2010; Williamson 2009 등)은 위안화가 국제통화로 등장하여 머지않아 미달러화, 유로화와 함께 경쟁하는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국제통화가 되기 위한 조건 면에서 위안화의 강점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 외환보유국, 순채권국, 그리고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안정적이고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이며,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은 중국의 힘과 권위가 급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안화의 국제기축 통화조건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하지만 위안화가 지닌 약점은 중국이 자본통제를 철저히 하고, 금융부문이 심화되지 못하고 금융억압이 심하다는 것임.
- 중국은 기존 국제통화국들에 비해 금융자산이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며, 정치적 위험이 기존 국제통화국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임.
- 정치위험도가 높고 금융부문이 낙후된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한다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것이고 그 결과 금융 및 경제위험도가 높아지고 위안화 가치의 신뢰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므로, 위안화가 국제화되고 국제통화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함.
-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위안화가 가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참여하는 삼극체제는 상당기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
- 영국과 일본의 다른 점을 보면, 영국은 금융부문의 규모가 크고, 자유화 및

국제화가 이루어졌으며,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며, 순채권국이면서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두 나라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국가의 힘이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제통화에 대한 수요가 경제 및 수출 규모, 그리고 국가의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파운드화와 엔화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 추세를 따라갈 것이므로 기축통화 경쟁 대열에 합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 당분간 글로벌 통화체제의 불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 지역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가능한 지역통화 대안제시를 통해 국제통화 재편과정에서 아시아의 이득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의 거대한 규모와 급속한 성장으로 아시아가 향후 위안화 경제권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지만 위안화는 아직 국제화도 되지 않은 통화에 불과하며, 아시아에서 국제적 호환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영향력 있는 통화는 일본의 엔화밖에 없지만 엔화는 일본경제의 위축과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적인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아시아는 기존의 달러화 중심체제의 불안정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역내국가들의 이득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요구됨.

-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권 설립임.
 -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 통화권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이 대안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많은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졌음.
 -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하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하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 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해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워서 좀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 간 통화협력이며, 이 대안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한중일 3국은 이미 7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으며, 우선은 위기대응 차원에서 협력이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 설치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

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음.

- 한·중·일 통화협력은 일단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어서,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음.
 -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함.
 -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으며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음.
 - 따라서 한·중·일 3국 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한·중·일 통화 EACU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표 1]과 같은 단계를 거치며, 이를 통해 EACU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EACU의 구성 단계

단계	내용	계산방식
제1단계	EACU의 가치를 외부 통화가치를 기준으로 설정	1EACU=미화 1\$
제2단계	EACU에 포함될 한중일 통화단위를 확정	CMI 기여 기준
제3단계	기준시점부터 EACU의 환율 계산	2000년 기준시점

- EACU는 CMI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각국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원화, 위안화, 엔화의 비중을 정하기로 상정함.
- 이 경우 <원화 : 위안화 : 엔화 = 0.2 : 0.4 : 0.4>의 비중을 가지게 되며, 이 비중을 2000년 기준으로 각 통화 단위로 환산하면 <원화 : 위안화 : 엔화 = 226.3 : 3.3 : 43.1> 단위가 됨.
- 따라서 <1EACU=226.3원+3.3위안+43.1엔>이 됨.

4.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기존의 국제통화체제가 유지될 것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달러화는 기초적으로 평가절하 추세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나,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단일통화가 나타나기 어려우며, 양극체제나 삼극체제로 진전되기에 시간도 걸릴 것이므로 새로운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 국제경제는 통화체제 불안에 따른 불안정을 피할 수 없게 됨.
- 미국 달러화의 영향력이 약해질수록 주기적으로, 점점 더 자주 거시경제적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으로서는 외환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유동성, 특히 달러화의 확보가 필요하나 달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이므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며, 무제한적으로 외환보유를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함.

■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어 한국경제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 그리고 세계경제 전반에서 미국경제와의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커지게 될 것임.
- 이러한 변화는 거래통화의 변화압력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며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미국과 같이 세계경제가 의존할 수 있는 거대소비시장을 다른 지역이 제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다만 지역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규모의 소비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지역별 시장의 성장과 함께 통화체제도 지역별 기축통화체제가 나타나고 미국 달러화는 지역별 기축통화를 연결하는 통화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
- 이러한 실물시장 간의 의존관계와 기축통화의 역할 변화, 그리고 시노리지 창출을 통한 소비시장 제공 등 거시경제적 연계고리의 변화 등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적응문제를 야기할 것임.
- 지금까지는 미국 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지만 향후에는 지역 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함.

■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함.

- 아시아의 통화체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단일통화로는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가능한 대안이지만 국제화 수준, 경

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화체제의 형성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그 대안으로 아시아 국가간 공동통화를 창출하여 통화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통화체제 구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지역통화협력 추진은 먼저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는데 3국은 경제규모, 통화협력의 필요성, 협력 경험, 협력사무소 구비, 국제적 역할 가능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아시아 지역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의 역내 리더십 경쟁으로 어느 한 나라가 나서기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하여,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아시아 통화체제 구축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여건으로 보아 중국과 일본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나라도 한국이며, 외환시장의 안정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될 나라도 한국이므로, 이를 위해 한·중·일 협력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곳을 중심으로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만들어 협력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3국 정상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들이 각기 담당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를 일단 가상으로 도입하여 그 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 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금까지 역내협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협력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진전을 보이지 못한 측면도 있으므로, EACU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역내협력을 추동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중·일 바스켓 통화인 EACU를 기준으로 역내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한·중·일 FTA 체결 시 역내 가격안정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이 통화를 바탕으로 환율협력이나 병행통화의 도입 등도 가능하므로 EACU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매일 당일 환율을 고시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공공분야에서 먼저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임.

■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에 대한 계획이라도 각국 지도자들이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시장 설립에 대한 계획이나 통화통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상회의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었음을 참고하여, 통화체제에 관한 협력이라 할지라도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는 경우 부처간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시 협력을 진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임.
-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 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 경제와 역내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